

석사학위논문

무용작품 「화정(華政)-죽은 듯이」
에 관한 연구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아 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작품 「화정(華政)-죽은 듯이」 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HwaJung(華政)- As if Dead」

2021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김 아 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작품 「화정(華政)-죽은 듯이」
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HwaJung(華政)- As if Dead」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아 현

김아현의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무용작품 「화정(華政)-죽은 듯이」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김 아 현

본 연구는 정명공주가 서궁 생활을 하던 때의 감정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를 통해 정명공주의 마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자한다.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는 정명공주의 삶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명공주의 주요 사건을 나열하고 그 안에서 정명공주가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며, 또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창작되어진 무용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의 형식과 구조, 구성요소, 표현방법, 의상, 소품, 조명, 음악 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비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한다.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는 정명공주의 삶의 주요 사건인 아버지 선조의 죽음과 계축옥사로 인한 신분강등, 서궁 유폐사건을 바탕으로 정명공주의 감정변화를 중점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현대적으로 무용화하여 창작하였다. 정명공주 아버지인 선조의 죽음을 시작으로 정명공주가 그림자를 경계하며, 그

림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정명공주의 신분이 강등되었다. 또한 정명공주가 그림자 안에 갇혀 두려움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이 고조되면서 현실에 부딪혀 체념하며,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붓을 이용해 서예를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현실을 견디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연구자는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정명공주가 자신의 삶속에서 시련을 어떻게 하여 극복해냈는지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련의 연속을 겪고 있을 현대인들에게 간접적이거나 정명공주의 ‘빛나는 다스림’을 통해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나 자신부터 다스리며 시련과 갈등하는 현실에서 공생하는 지혜를 가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주요어】 정명공주(貞明公主), 화정(華政), 서예, 다스림, 마음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역사적 배경	3
2.1.1 정명공주의 탄생	3
2.1.2 계축옥사	3
2.1.3 서궁 유폐사건	4
2.2 ‘화정(華政)’의 탄생배경	5
2.2.1 빛나는 다스림 ‘화정(華政)’	5
2.1.2 서예작품 ‘화정(華政)’	6
III. 연구 작품의 개요	8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8
3.2 작품의 구성 요소 및 표현매체	10
3.2.1 움직임 표현방법	10
3.2.2 의상	11
3.2.3 소품	14
3.2.4 조명	15
3.2.5 음악	16
IV. 작품분석	17
4.1 작품의도	17
4.2 작품내용	17
4.3 1장: 신분강등	18
4.3.1 내용 및 안무의도	18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18
4.3.3 음악	21

4.3.4 무대장치 및 조명	21
4.4 2장: 죽은 사람처럼	24
4.4.1 내용 및 안무의도	24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4
4.4.3 음악	27
4.4.4 무대장치 및 조명	28
4.5 3장: 체념과 승화	30
4.5.1 내용 및 안무의도	30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0
4.5.3 음악	33
4.5.4 무대장치 및 조명	33
V. 결 론	35
참 고 문 헌	36
부 록	37
ABSTRACT	39

표 목 차

[표 1-1] 장면의 특성/ 1장-신분강등	8
[표 1-2] 장면의 특성/ 2장-죽은 사람처럼	9
[표 1-3] 장면의 특성/ 3장-체념과 승화	9
[표 2] 움직임표현방법	10
[표 3] 조명의 구성	15

그 립 목 차

〈그림 1-1〉 정명공주가 쓴 화정(華政)	7
〈그림 1-2〉 정명공주 의상1	11
〈그림 1-3〉 정명공주 의상2	11
〈그림 1-4〉 그림자의의상1	12
〈그림 1-5〉 그림자의의상2	12
〈그림 1-6〉 그림자 속 의상	13
〈그림 1-7〉 용포	14
〈그림 1-7〉 붓과 한지	14
〈그림 2-1〉 1장: 절을 하는 정명공주	18
〈그림 2-2〉 1장: 슬퍼하는 정명공주	18
〈그림 2-3〉 1장: 경계하는 정명공주1	19
〈그림 2-4〉 1장: 경계하는 정명공주2	19
〈그림 2-5〉 1장: 다가오는 그림자	19
〈그림 2-6〉 1장: 엇갈림	19
〈그림 2-7〉 1장: 용포 뺏는 그림자	20
〈그림 2-8〉 1장: 저고리 뺏는 그림자	20
〈그림 2-9〉 1장: 플로어패턴1	20
〈그림 2-10〉 1장: 플로어패턴2	20
〈그림 2-11〉 1장: 플로어패턴3	20
〈그림 2-12〉 1장: 플로어패턴4	20
〈그림 2-13〉 1장: 조명플랜1-1	21
〈그림 2-14〉 1장: 조명플랜1-2	21
〈그림 2-15〉 1장: 조명플랜2	22
〈그림 2-16〉 1장: 조명플랜3-1	22
〈그림 2-17〉 1장: 조명플랜3-2	22
〈그림 2-18〉 1장: 조명플랜4	23
〈그림 3-1〉 2장: 도망가는 정명공주	24
〈그림 3-2〉 2장: 그림자발견	24

〈그림 3-3〉 2장: 정명공주 찾는 그림자1	25
〈그림 3-4〉 2장: 정명공주 찾는 그림자2	25
〈그림 3-5〉 2장: 쫓는 그림자	26
〈그림 3-6〉 2장: 갇힌 정명공주	26
〈그림 3-7〉 2장: 벗어나려는 정명공주	26
〈그림 3-8〉 2장: 절망하는 정명공주	26
〈그림 3-9〉 2장: 플로어패턴 1	27
〈그림 3-10〉 2장: 플로어패턴 2	27
〈그림 3-11〉 2장: 플로어패턴3	27
〈그림 3-12〉 2장: 플로어패턴4	27
〈그림 3-13〉 2장: 조명플랜1	28
〈그림 3-14〉 2장: 조명플랜2	28
〈그림 3-15〉 2장: 조명플랜3	29
〈그림 3-16〉 2장: 조명플랜4	29
〈그림 4-1〉 3장: 마지막까지	30
〈그림 4-2〉 3장: 발견	30
〈그림 4-3〉 3장: 추억회상1	31
〈그림 4-4〉 3장: 한 단계 올라가기 전	31
〈그림 4-5〉 3장: 추억회상2	32
〈그림 4-6〉 3장: 마음가짐	32
〈그림 4-7〉 3장: 플로어패턴	33
〈그림 4-8〉 3장: 조명플랜1-1	33
〈그림 4-9〉 3장: 조명플랜1-2	33
〈그림 4-10〉 3장: 조명플랜 1-3	34

I. 서론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는 정명공주의 삶 중에서 5년간 서궁 생활을 하던 그때의 감정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을 통해 정명공주의 마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자한다.

정명공주는 태어나기 전부터 위협을 받으며 태어났으며, 계축일기에 따르면

만력(萬曆) 임인년(壬寅年, 1602년, 선조35년)에 종전께 태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이 그 소문을 듣고 종전을 놀라게 하여 낙태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대궐에 돌팔매질도 하고, 어떤 때에는 궁궐 사람들을 꺾어 내인의 측간에 구멍을 뚫고 나무로 쑤서대며, 궁궐 밖에 명화강도(明火強盜)가 나타났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¹⁾

다음과 같다.

아버지인 선조가 죽은 뒤 이복남매인 광해군이 동생인 영창대군을 유배 보내고 증살시키며 외가 쪽 가문을 멸문시키다시피 하였다. 또한 어머니인 인목왕후와 정명공주의 신분을 강등하고 서궁에 유폐시키므로 고된 생활을 했다. 인조 반정으로 신분을 회복한 후 순탄한 나날을 보내나하였더니 어머니인 인목왕후가 돌아가신 후 인조가 정명공주를 ‘백서삼폭’과 ‘저주’의 배후라고 의심을 하며 정명공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인조반정공신들로 인해 무사했다. 인조는 정명공주를 계속 의심하며 인조가 죽은 뒤에야 편히 살 수 있었다.

이처럼 정명공주는 끊임없이 위협과 시련 속에서 잘 이겨내며 버텼다. 혜경궁 홍씨, 허난설헌, 황진이, 심사인당처럼 조선시대의 유명한 여성들에 비해 정명공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본 연구자는 정명공주가 삶에서 어떻게 이겨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이중 서궁 유폐시절에 초점을 두어 탐구하고자한다.

1) 조재현, (2003). 『계축일기』. 서울: 서해문집. p.19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는 정명공주의 삶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명공주의 주요 사건을 나열하고 그 안에서 정명공주가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했다. 또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창작되어진 무용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의 형식과 구조, 구성요소, 표현방법, 의상, 소품, 조명, 음악 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비평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역사적 배경

2.1.1 정명공주의 출생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 박 씨가 사망한 뒤, 비어있는 왕비자리에 인목왕후 김 씨가 들어왔다. 김제남과 광산 노 씨 사이에서 태어난 3남2녀 막내딸로 태어난 인목왕후는 51세의 선조와 19세에 혼인을 하였다.

이미 광해군으로 왕세자가 책봉 되어있지만 선조는 적자출신의 왕자를 보고 싶었다. 1603년 선조의 딸들 중 유일한 공주인 정명공주가 선조 36년 5월19일에 정릉동 행궁에서 태어났다. 행궁이란 정식 궁궐이 아닌 임시 궁궐을 말하며, 임진왜란 때 왜적들이 한양을 점령하였을 때, 경복궁과 창덕궁 등 모든 궁궐을 태워버려 제대로 남아있는 궁궐이 없었다. 그나마 정릉동 월산대군의 집이 완전하게 남아있어 정릉동 행궁으로 사용되었다. 1606년 선조는 55세라는 늦은 나이에 적자 출신의 장자이자 정명공주의 동생인 영창대군을 얻었다.

2.1.2 계축옥사

1613년 정명공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건인 살해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은을 사고파는 은상을 살해한 사건으로 살해 주범은 서양의 정치인 박순의 서자 박응서를 비롯한 7명의 서얼들이다. 이들은 무기와 양식을 준비하여 서얼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자금 확보를 위해 은상을 살해한 것이다. 심문 도중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박응서가 자금을 확보

해 김제남(정명공주의 외조부)을 중심으로 왕과 세자를 죽이고 영창대군을 추대하려했다는 진술을 하여 광해군이 김제남을 처형시키고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하여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다. 1614년 봄에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강화부사는 영창대군을 작은 골방에 가두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증살시키며 영창대군은 9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2.1.3 서궁 유폐사건

광해군 10년(1618)1월 28일 인목왕후는 대비에서 서궁으로 신분이 강등되었다. 서궁이란 인목왕후 김 씨가 살던 경운궁과 창덕궁 서쪽에 살고 있는 후궁이란 뜻이다. 광해군은 서궁 주변에 담장을 높게 쌓고 감시를 하였고 인목왕후가 후궁으로 강등되자 정명공주도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보통은 후궁의 딸인 옹주가 되어야 하지만 정명공주는 옹주 이하인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5년 동안 정명공주와 인목왕후, 궁녀들의 서궁 생활은 곤궁하게 살았으며, 이런 시간들 보내면서 정명공주의 생활력은 강해졌다. 정명공주가 16살 때 서궁에 유폐되어 먹는 것과 입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이 없어 걱정을 하다 우연히 씨(種子)들이 생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며 그 속에서 희망을 얻으며 서예공부를 하였다.

선조, 인목왕후, 정명공주는 조선왕실을 대표하는 서예가다. 선조는 17세기 이후 국왕어필의 전형을 수립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인목왕후는 ‘민우시’로 알려진 서예작품을 남겼다. 또한 정명공주는 ‘화정(華政)’이라는 대자를 비롯해 여러 서예작품을 남기면서 조선시대 여성 최고의 서예작가로 평가받으며, 대부분의 서예작품이 서궁 유폐시절에 탄생되었다.

2.2 ‘화정(華政)’의 탄생배경

2.2.1 빛나는 다스림 ‘화정(華政)’

‘화정(華政)’의 화(華)는 꽃 또는 빛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政)은 다스림을 뜻한다. 화정(華政)은 ‘화려한 정치’ 혹은 ‘빛나는 다스림’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려한 정치’는 자신의 출세를 추구하는 모습을 말하며 ‘빛나는 다스림’은 자기 수양과 애민(愛民)의 의미한다. 두 종류의 화정(華政)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숙종 8년 정명공주가 80세가 된 해에 막내아들인 홍만회에게 내린 글이 있다.

내가 원하건대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입에 올리고 정치와 법령을 망령되이 시비하는 것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내 자손들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경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²⁾

조정에서는 당파싸움으로 옥사(獄死)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자신의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 생사와 직결된 냉혹한 정치세계에 있었던 정명공주는 자신이 깨달은 화정(華政)이라는 ‘빛나는 다스림’을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명공주는 계축옥사,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두 번의 예송, 경신 대기근 등 역사의 굴곡을 직접적으로 겪었으며, 광해군과 인조는 정명공주를 돈독하게 보듬었지만 결국 광해군은 정치적 견해차이로, 인조는 의심중

2)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9498&cid=59015&categoryId=59015>

때문에 정명공주를 죽음의 고통까지 몰아갔다. 당시 정명공주는 많은 시련들을 맞대응하지 않고 서궁에 윤패되었을 때처럼 항상 숨죽이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숨죽인 채 다른 사람을 움직인다.’ 그것이 서궁에서 얻은 ‘빛나는 다스림’이었다.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서 정명공주를 지켜준 사람은 어머니도 남편도 아닌 인조반정의 공신들이었으며, 겉으로 정명공주는 어떤 말이나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반정공신들이 움직였던 것이다.

정명공주는 공주로서의 화려함보다는 ‘존귀함, 겸손, 공손, 어짊, 후덕’을 지키려했고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란 갈 때는 배에 실은 자신의 재물대신 피란 민을 태우기도 했다.

정명공주(1603~1685)의 묘비 글에는 “공주는 부인의 존귀함에 걸맞게 겸손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후덕해 오복을 향유했다.” 라고 적혀있으며, 이는 동시대를 함께했던 송시열(1607~1689)에 의해 써졌다.

정명공주는 인조가 죽은 뒤 순탄한 나날들을 보냈으며 그녀의 후손은 대대로 역사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 배경에는 정명공주가 강조한 ‘빛나는 다스림’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2.2.2 서예작품 ‘화정(華政)’

조선 최고의 여성 서예작가로 평가받는 정명공주의 대표적인 서예작품 중 하나인 ‘화정(華政)’은 서궁 윤패 시절에 써졌으며, ‘화정(華政)’은 서체 한 자가 73cm되는 대작이다. ‘화정(華政)’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작품이 라고 느낄 정도로 선이 굵고 힘과 기세가 느껴지는 서체이며, ‘화정(華政)’은 정명공주가 떠난 뒤 막내아들 흥만회에 의해 남겨졌다. 조선 후기 문장가이자 서화가인 남구만에 게 ‘화정(華政)’의 발문을 부탁하였으며, 남구만은 ‘화정(華政)’에서 여성의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으며 남성의 기상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명공주의 필법은 선조의 필법을 본뜬 것이며, 선조의 필법은 한석봉의 필법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는 곧 정명공주의 필법 또한 한석봉의 필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정명공주는 암울한 시기에 ‘화정(華政)’이라는 글씨를 쓰게 되었을까? 남구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어 있었을 때, 정명공주는 아직 혼인 전이었
다. 정명공주는 인목대비를 옆에서 모시면서 슬프고 비통하며 두렵고 위
촉되어 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정명공주는 붓을 잡고 큰 글자 작은
글자를 써서 인목대비의 마음을 위로 하고 풀어드리고자 했다.”

남구만, <약천집> 정명공주필적발³⁾

아들인 영창대군과 친정아버지인 김제남을 잃고 서궁에 유폐당한 인목왕후에게 남아 있는 건 정명공주뿐이었으며, 정명공주마저 빼앗길까봐 광해군의 사람들이 정명공주의 행방을 물으면 죽었다고 말하였다. 정명공주 또한 서궁에 숨어 죽은 듯이 살았으며 아버지인 선조의 어필이자 자신의 서체를 쓰며, 어머니인 인목왕후와 자신의 절망과 원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정명공주의 대부분의 서예작품들이 탄생하였다.



〈그림1〉 정명공주가 쓴 화정(華政)[출처: 간송미술관]

3) 신병호, (2003). 『화정, 정명공주』. 서울: 생각정거장. p222.

Ⅲ. 연구 작품의 개요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는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에서 정명공주가 서궁에 유폐되었던 5년간 느꼈을 정명공주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정명공주의 삶의 주요 사건인 아버지 선조의 죽음과 계축옥사로 인한 신분강등, 서궁 유폐사건을 바탕으로 장을 구성하였으며 정명공주의 감정변화와 고조됨에 따라 장을 전환 하였다.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는 정명공주의 실제 삶을 현대적 해석으로 무용화하였으며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용포와 ‘상 위복’이라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의 무용수가 정명공주의 아버지인 선조의 죽음에 대한 감정의 표현을 시작으로 총 네 명의 무용수가 5년간의 서궁 유폐시절에 정명공주의 감정 변화와 고조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표1-1] 장면의 특성/ 1장- 신분강등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1장	신분강등	- ‘상 위복’이라는 소리를 통해 왕(아버지)의 죽음표현 - 용이 그려져 있는 용포와 저고리를 뺀 김으로서 왕족이 아님을 표현	5분

1장에서는 ‘상 위복’이라는 소리를 통해 아버지인 선조의 죽음을 표현하였고 정명공주의 위협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명공주가 입고 있던 용이 그려져 있는 저고리와 용포를 뺀음으로써 정명공주가 왕족이 아닌 서인으로 신분이 강등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1-2] 장면의 특성/ 2장- 죽은 사람처럼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2장	죽은 사람처럼	- 빠른 음악 - 그림자 동선 크게, 장삼: 직선적 움직임	6분

2장은 빠른 음악으로 긴장감과 경계를 표현하였고 그림자의 동선을 크게 사용하여 장삼을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명공주와 그림자의 쫓고 쫓기는 장면을 표현하면서 정명공주의 두려움과 그림자의 위협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표1-3] 장면의 특성/ 3장- 체념과 승화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3장	체념과 승화	- 한지와 붓을 이용하여 서예표현	4분

3장에서는 정명공주가 2장의 상황을 받아드리며 체념하고 서예를 통하여 자신을 위로하며 승화시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 표현방법

전반적인 움직임은 두려움의 감정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두려움이란 감정을 가질 때 대상을 인식하거나 경계하고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그에 따라 대처를 하는 등 그때의 상황에 느끼는 감정과 나오는 몸짓에 초점을 두고 대조적인 움직임과 높낮이를 주면서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무용작품 「화정(華政)-죽은 듯이」에서의 움직임 표현방법을 [표2]로 정리하였다.

[표2] 움직임표현방법

동기	표현방법	기대효과
공간(Direction)	공간분리	서로 다른 속도로 분리 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조되는 움직임으로 공간의 차이를 극대화 하였다.
중력(Gravity)	높낮이	두려움에 감정의 단계를 높낮이로 대비를 주었다.
모양(Shape)	변형	장면의 감정에 따라 동작의 형태를 변형하였다.

3.2.2 의상



〈그림 1-2〉 정명공주 의상1



〈그림 1-3〉 정명공주 의상2

〈그림 1-2〉 정명공주 의상1의 상의는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복인 흰색저고리를 여미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왕족의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 용 모양을 앞, 뒤에 넣었다.

〈그림 1-3〉 정명공주 의상2의 상의는 예로부터 왕실의 색으로 쓰였던 보라색으로 여성스러움을 돋보이도록 소매와 정면의 저고리를 사선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안감이 비치지 않도록 두 겹으로 제작하였다.

하의는 조용함, 무(無)등을 연상시키고 자발성이 없는 무의미한 색의 성격을 띠는 회색으로 원피스 형태의 속이 비치지 않는 두 겹으로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중간에 공주에서 서인으로 신분이 변화하여, 의상이 전체적으로 화려하지 않게 색의 채도를 낮추어 제작하였다.



〈그림 1-4〉 그림자의상1



〈그림 1-5〉 그림자의상2



〈그림 1-6〉그림자 속 의상

그림자의 의상은 전체적인 색은 검정색과 몸짓이 크고 묵직한 느낌으로 소매를 길게 늘어뜨린 장삼을 사용하였다. 〈그림 1-4〉 그림자의상1은 1,2장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해 검정색 고깔을 착용하였다. 3장 〈그림 1-5〉그림자의상2는 정명공주의 불안한 감정과 사고를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여, 해방감을 주는 흰색 고깔로 선택하였다.

〈그림 1-6〉그림자 속 의상은 조명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수가 잘 보이지 않아 피부색이 보이도록 망사로 된 긴팔의 의상으로 제작하였다. 무게감을 주기 위해 하의를 무채색으로 하였으며 움직임이 편리하게 바지로 제작하였다. 상의와 통일감을 주기 위해 옆 라인에 베이지색의 디자인요소를 넣고 상·하의의 구분을 위해 허리에 갈색의 줄로 디자인을 넣어 제작하였다.

3.2.3 소품



〈그림 1-7〉 용포



〈그림 1-8〉 붓과 한지

본 연구의 분석 작품인 「화정(華政) - 죽은 듯이」에서는 작품의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품을 사용하였다. 〈그림 1-7〉 용포는 왕이 입는 용포로, 곤복(袞服) 또는 용포(龍袍)라고도 한다. 노란 색, 또는 붉은색 비단으로 지었고, 황색 단(緞)이나 사(紗)에 붉은색 안을 넣었으며, 가슴·등·양어깨에는 보(補)라고 하는 금실로 수놓은 오조룡(五爪龍)을 붙였다.⁴⁾ 아버지이자 왕인 선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림 1-8〉 붓과 한지는 긴 붓과 한자가 쓰인 한지를 사용해 무대에서 서예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 중 한지를 길게 펼칠 수 있도록 긴 봉에 말아서 바닥에 고정된 형태로 제작하였다.

4) [네이버 지식백과] 곤룡포 [袞龍袍] (두산백과)

3.2.4 조명

본 연구의 무용작품 「화정(華政)-죽은 듯이」을 이루고 있는 무대조명은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명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1장의 조명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소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로 표현하고 강조를 주고 싶은 소품이나 무용수에 스포트라이트를 주었다. 그리고 무용수의 움직임의 반경이 커질 땐 조도가 낮은 화이트 조명을 주로 사용하였고 그림자가 나오기 전 장삼을 뿌리는 장면의 조명은 장삼의 실루엣이 보일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주었다. 또한 푸른 계열의 사이드 조명을 사용하여 불안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2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였고 불안한 분위기를 위해 푸른 계열의 사이드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선으로 달려가거나 나오는 부분에서 길 조명을 사용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극대화 시켰다.

3장은 1장과 2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따뜻한 느낌을 주기위해 황색 계열의 사이드 조명을 사용하였고 강조하고 싶은 장면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실루엣만 보이고 싶은 장면에 조도가 낮은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서로 대조되게 사용하였다.

[표3] 조명의 구성

장면	조명	분위기
1장	스포츠라이트, 푸른 계열의 사이드	슬픔, 그리움, 경계
2장	스포츠라이트, 푸른 계열의 사이드, 길 조명	두려움, 위협
3장	스포츠라이트, 황색 계열 사이드	위로, 희망, 극복

3.2.5 음악

본 연구의 무용작품 「화정(華政)-죽은 듯이」에서는 6종류의 음악을 사용한다. 1장에서의 첫 번째 음악으로 ‘아박 소리’를 사용하였다. 아박은 궁중음악에서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쓰였으며 작품에서 또한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쓰였다.

그리고 5초 무음 후에 두 번째 음악인 ‘상위복(上位復) 소리’를 사용하였다. 상위(上位)는 왕을 뜻하고 복(復)은 돌아오라는 의미로 왕이 승하하였을 때 행해진 조선의 국가의례이다. 이는 내시가 평상시에 입던 임금의 옷을 앞 동쪽 지붕 처마로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세 번 상위복(上位復)이라 외치며 동쪽은 생명의 방향, 북쪽은 죽음의 방향을 뜻한다. 동쪽으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외침으로써 복은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뜻으로 셋을 성스러운 수로 여겼기 때문에 세 번 외쳤다. 이를 통해 왕이 승하였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세 번째 음악 ‘방준석의 사도, Throne’은 왕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사용하였다. 이 음악은 영화 사도에서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 춤을 추면서 중간에 지난날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이 장면이 본 연구의 작품 내용인 정명공주가 아버지인 선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장면과 맥락이 일치하여 사용하였다.

네 번째 음악 ‘나윤식, 박세준의 Stalking’은 처음에는 느리게 장단이 들어오면서 현악기가 효과음으로 들어오며 음악의 분위기가 점점 바뀐다. 이를 본 연구의 작품에서는 경계하는 부분의 음악으로 사용하였다.

1장의 다섯 번째 음악, 2장의 첫 번째 음악인 ‘김동혁의 Storm Beat’은 규칙적인 장단을 시작으로 중간에 현악기가 효과음이 들어오면서 장단이 빨라진다. 용포와 저고리를 뺏는 장면과 도망치는 장면의 음악으로 사용하였다.

2장의 두 번째 음악 ‘블랙스트링의 Seven Beats’는 천천히 무겁게 장단이 들어오면서 무거운 느낌으로 장단의 속도가 빨라진다. 본 연구의 작품에서는 그림자의 무거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의 3장의 음악으로는 ‘방준석의 사도, Throne’은 1장에서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과 더 나아가 극복해 가는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IV. 작품분석

4.1 작품의도

본 연구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서예를 소재로 정명공주가 기고한 삶속에서 아버지의 어필(御筆)을 쓰며 마음을 다스리면서 서궁에서 죽은 듯이 살았던 윤희 생활에서 느낀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4.2 작품내용

왕이 승하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군가 다가온다.

그게 내 마음의 그림자인지

나를 위협하는 사람의 그림자인지

경계가 된다.

나를 쫓아오고 있다.

무섭다.

도망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근데 죽을지도 몰라

한 자 쓰고

그립구나.

두 자 쓰고

언젠간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4.3 1장 신분강등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1장에서 정명공주의 아버지인 선조가 죽으면서 이복남매 광해군의 사람들에게 의해 정명공주의 어머니, 선조의 왕후였던 인목왕후의 아버지인 김제남과 아들인 영창대군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였다(계축옥사). 그로 인해 인목왕후는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그녀의 딸 정명공주 또한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2-1〉 1장: 절을 하는 정명공주



〈그림2-2〉 1장: 슬퍼하는 정명공주

조명으로 용포만 보이도록 하면서 왕을 비유하였고 음악으로 ‘상위복(上位復)’소리와 함께 정명공주가 나오면서 용포를 보며 절을 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이자 왕의 죽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용포에 다가가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용포를 조심스럽게 만지다가 감정이 고조되면서 용포를 꼭 쥐거나 품에 안으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리워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림 2-3〉 1장: 경계하는 정명공주1 〈그림 2-4〉 1장: 경계하는 정명공주2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적으로 분위기를 바꾸었고 용포를 안은 채 고개를 이용하여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상·하수 up stage에서 장삼자락이 뿌려지면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림 2-5〉 1장: 다가오는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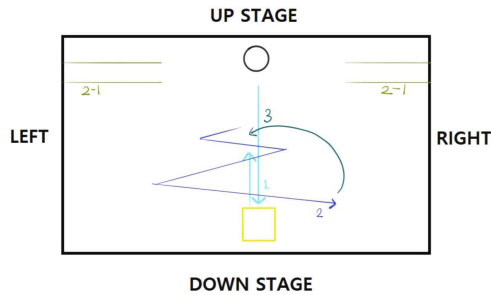
〈그림 2-6〉 1장: 엇갈림

상수 up stage에서 하수 down stage까지 점진적으로 그림자가 정명공주에게 다가오는 것을 통해 그림자가 정명공주에게 위협을 주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림자와 정명공주가 서로 엇갈리며 상·하수로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피하고 찾는 것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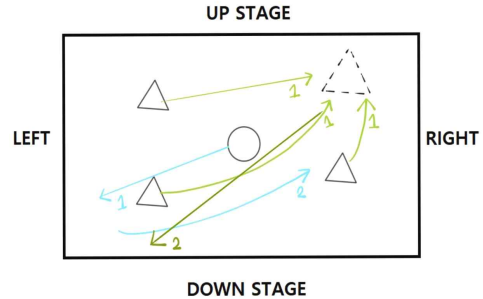


〈그림 2-7〉 1장: 용포 뺏는 그림자 〈그림 2-8〉 1장: 저고리 뺏는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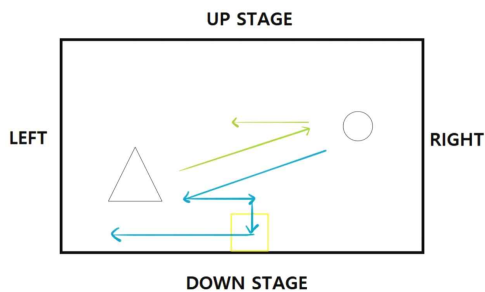
정명공주가 용포를 가지고 도망가면 그림자가 용포와 저고리 뺏는 행위를 통해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 정명공주의 신분강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1장의 플로어 패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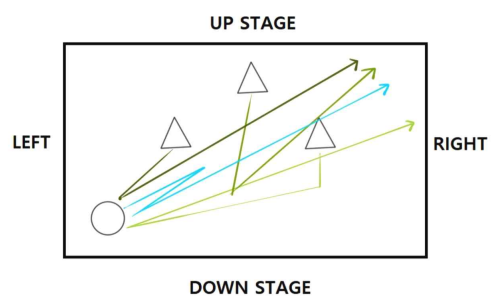
〈그림 2-9〉 1장: 플로어패턴1



〈그림 2-10〉 1장: 플로어패턴2



〈그림 2-11〉 1장: 플로어패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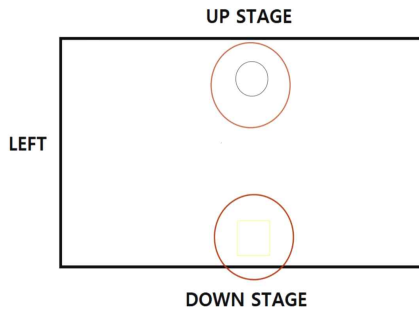


〈그림 2-12〉 1장: 플로어패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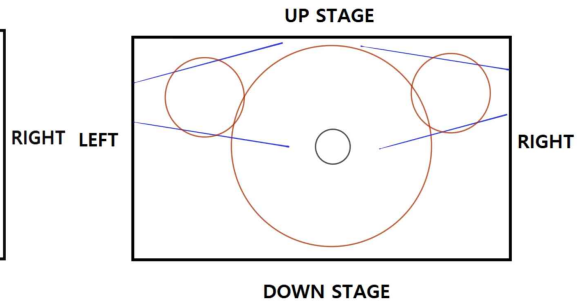
4.3.3. 음악

음악은 center down stage에 조명이 들어온 후 ‘아박 소리’가 3번 친다. 무음 5초 뒤에 ‘상위복(上位復)’라는 소리로 왕인 아버지의 죽음을 보여준다. 그 후에 ‘방준석의 사도, Throne’음악이 나면서 정명공주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용포로 다가가 슬퍼하다 음악이 fade-out된다. ‘나윤식, 박세준의 Stalking’이 나오면서 정명공주는 이상한 분위기를 인지하고 경계한다. 앞 음악과 맞물려서 ‘김동혁의 Storm Beat’가 나온다. 정명공주가 용포를 가지고 도망가면 그림자가 용포와 저고리를 뺏어간다.

4.3.4 무대조명 및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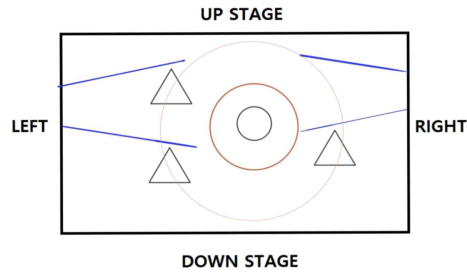
〈그림 2-13〉 1장: 조명플랜1-1



〈그림 2-14〉 1장: 조명플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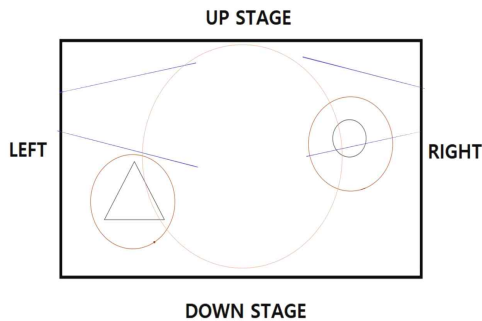
center down stage에 있는 용포에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지면서 ‘아박 소리’가 끝난 후 5초 뒤에 음악과 함께 center up stage 정명공주에게 천천히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온다.

정명공주가 center down stage로 내려가면서 center up stage의 스포트라이트가 out 되고 center중심의 조도가 낮은 전체조명이 들어온다. 푸른 계열의 사이드 조명이 들어오고 상·하수 up stage에 조도가 낮은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장삼자락의 실루엣이 보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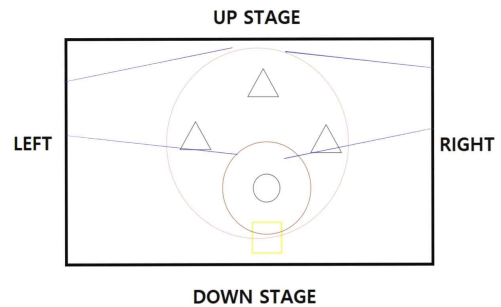


〈그림 2-15〉 1장: 조명플랜2

상·하수 up stage에서 그림자가 나오면서 스포트라이트 out되고 center에 있는 정명공주에게 스포트라이트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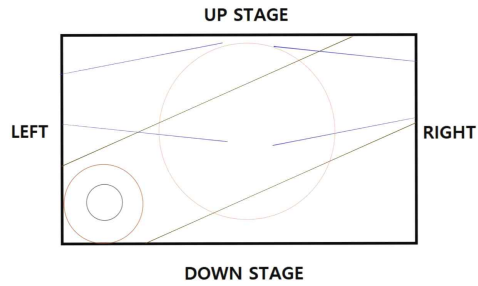


〈그림 2-16〉 1장: 조명플랜3-1



〈그림 2-17〉 1장: 조명플랜3-2

그림자가 상수 up stage로 이동하면서 center 스포트라이트 out시킨다. 푸른 계열의 사이드조명의 조도를 낮추고 정명공주와 그림자에게 상수 up stage와 하수 down stage에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였다. 정명공주가 하수 down stage에서 center로 오면 상·하수 스포트라이트 out하고 center 정명공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었다. 정명공주가 하수 down stage로 용포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center 스포트라이트 out되고 하수 down stage에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온다.



〈그림 2-18〉 1장: 조명플랜4

그림자가 다 퇴장하면 하수 down stage에 스포트라이트가 out되고 하수 down stage에서 상수 up stage로 정명공주가 달려가면서 하수 down stage에서 상수 up stage로 길조명이 켜진다.

4.4 2장: 죽은 사람처럼

4.4.1 내용 및 안무의도

2장은 서인이 된 정명공주가 더 이상 궁궐에 살 수 없어 떠나야하지만 동생 영창대군이 출궁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알기에 정명공주는 어머니인 인목 대비의 방에 숨어 5년간 지냈고, 광해군이 사람을 보내 정명공주를 찾으러오면 인목왕후는 광해군의 사람이 올 때마다 ‘정명공주는 죽었다.’고 말하였다(서궁 윤페사건).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3-1〉 2장: 도망가는 정명공주



〈그림 3-2〉 2장: 그림자발견

상수 up stage에서 하수 down stage까지 달려가고 움직임의 범위를 넓어지면서 도망가는 것을 표현하였다. center에서 상수 up stage에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하수 down stage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 정명공주는 도망가고 그림자가 정명공주에게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림 3-3〉 2장: 정명공주 찾는 그림자1



〈그림 3-4〉 2장: 정명공주 찾는 그림자2

장삼을 직선적으로 뿌리며 상체의 움직임과 고갯짓을 통해 그림자가 정명공주를 찾는 것을 표현하였고 〈그림 3-3〉, 〈그림 3-4〉처럼 대칭으로 하여 찾는 공간을 확장시켜 표현하였다.



〈그림 3-5〉 2장: 쫓는 그림자



〈그림 3-6〉 2장: 갇힌 정명공주

꼬리잡기 형식으로 정명공주를 쫓는 그림자는 표현하였고 달팽이처럼 말려 들어가며 정명공주가 그림자에게 둘러싸여 갇힌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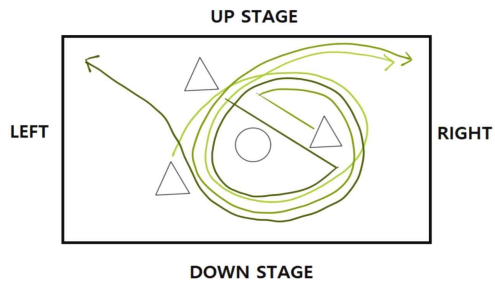
2장: 벗어나려는 정명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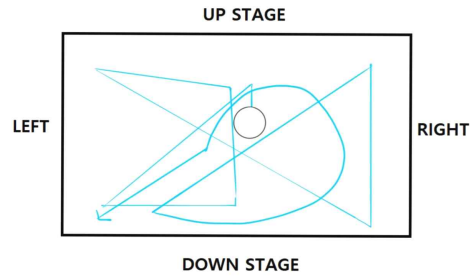
〈그림 3-8〉

2장: 절망하는 정명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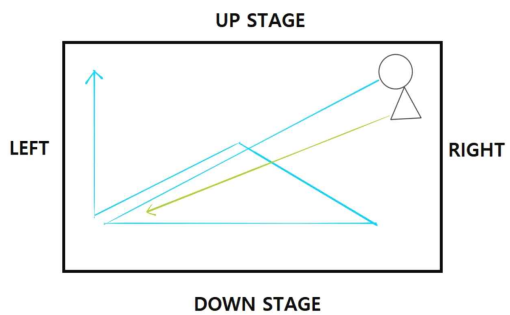
그림자가 나간 뒤에 정명공주의 움직임 범위를 무대 외각으로 넓혀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손바닥을 미는 동작과 손을 뺀 동작을 사용하여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표현하였다. 하수 down stage에 주저앉으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2장의 플로어 패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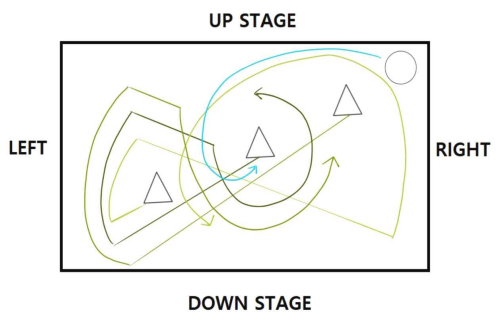
〈그림 3-9〉 2장: 플로어패턴 1



〈그림 3-10〉 2장: 플로어패턴 2



〈그림 3-11〉 2장: 플로어패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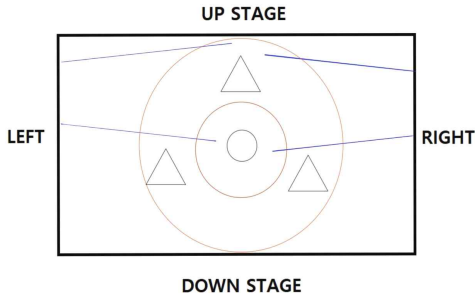
〈그림 3-12〉 2장: 플로어패턴4

4.4.3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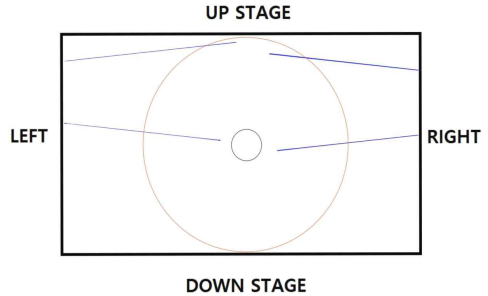
2장의 음악은 ‘김동혁의 Storm Beat’으로 규칙적인 장단이 들어오면서 정명공주가 용포를 들고 도망간다. 현악기가 효과음으로 들어오면 장단이 빨라지면서 그림자가 정명공주를 쫓아오고 용포와 저고리를 뺏는다. 그 후 장단이 빨라지며 정명공주가 도망치면서 음악이 fade-out이 된다.

그 후 ‘블랙스트링의 Seven Beats’로 천천히 무겁게 장단이 들어오면 정명공주가 상수 up stage에 있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하수 down stage로 도망간다. 상수 up stage에서 그림자가 나오면서 무겁게 움직이며 정명공주를 찾고 정명공주를 가둔 후에 정명공주가 괴로워하면서 음악이 fade-out이 된다.

4.4.4 무대조명 및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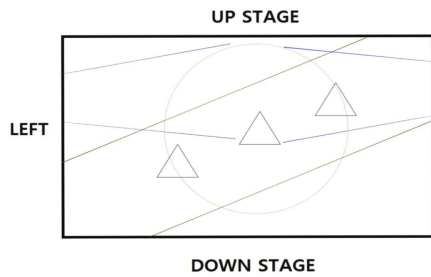


〈그림 3-13〉 2장: 조명플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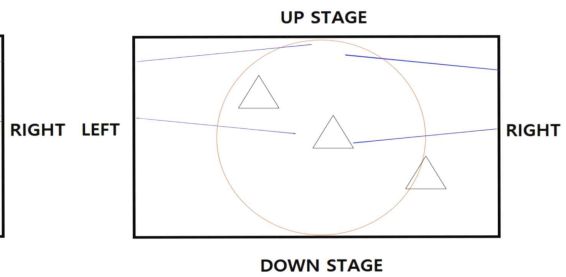


〈그림 3-14〉 2장: 조명플랜2

상수 up stage에서 하수 down stage로 길 조명을 사용하였고 하수 down stage에서 상수 down stage로 이동하면서 조도가 낮은 전체 조명과 푸른 계열의 사이드 조명을 사용하였다. 그림자가 상수 down stage에서 하수 up stage로 이동하면서 길 조명을 out시켰다.



〈그림 3-15〉 2장: 조명플랜3



〈그림 3-16〉 2장: 조명플랜4

정명공주가 center에 있고 그림자가 둘러싸였을 때 center에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였다. 그림자가 퇴장하면서 정명공주의 움직임 범위가 커지면 center 스포트라이트 out 시킨다. 정명공주가 하수 down stage로 가면 전체조명 천천히 out되면서 하수 dawn stage에 스포트라이트 사용한다.

4.5 3장 체념과 승화

4.5.1 내용 및 안무의도

3장은 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정명공주가 자신과 인목대비의 절망과 원한을 위로하며 풀어주려 아버지인 선조의 어필(御筆)을 본떠 글씨를 쓴다. 정명공주의 필체는 아버지인 선조의 필체와 닮았으며 자신이 글을 쓰며, 아버지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2장의 상황을 극복해가는 것을 표현하였다.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1〉 3장: 마지막까지



〈그림 4-2〉 3장: 발견

하수 down stage에서 마지막까지 손을 뻗으면서 벗어나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어 체념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상수 down stage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붓과 한지를 발견하여 다가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표현하였다.



〈그림 4-3〉 3장: 추억회상1



〈그림 4-4〉 3장: 한 단계 올라가기 전

정명공주가 붓을 만지는 움직임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한지를 펼치면서 한 발을 힘겹게 내딛는 움직임은 2장의 상황을 이겨내려는 것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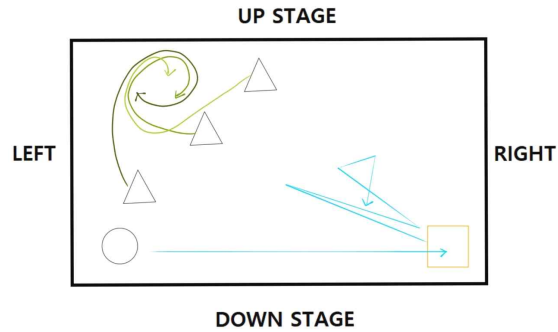


〈그림 4-5〉
3장: 추억회상2



〈그림 4-6〉
3장: 마음가짐

정명공주가 붓으로 허공에 글자를 쓰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하수 up stage에 그림자의 실루엣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었고 1, 2장과 다르게 장삼을 곡선의 형태로 뿌리면서 정명공주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상수 down stage에서 정명공주가 글을 정성스럽게 쓰면서 하수 up stage에 그림자의 실루엣만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림자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정명공주가 지금의 상황을 승화시킨 것을 표현하였다. 3장의 플로어패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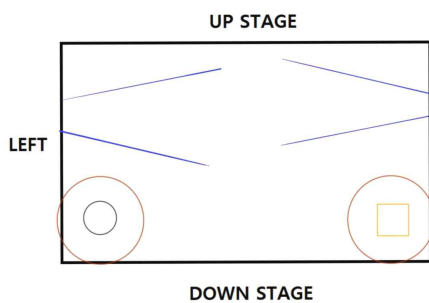


〈그림 4-7〉 3장: 플로어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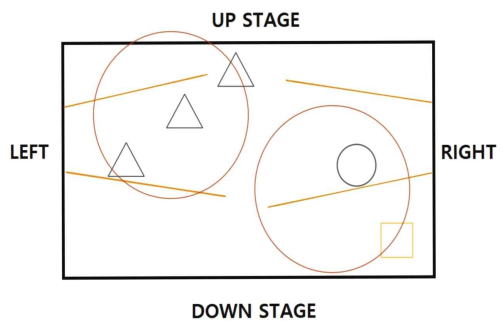
4.5.3 음악

음악은 1장과 같은 음악인 ‘방준석의 사도, Throne’을 사용하였고 1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더 나아가 극복해 가는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4.5.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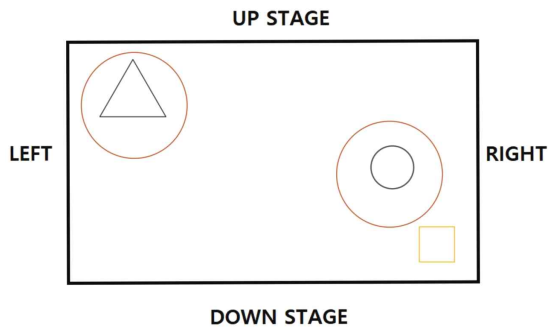


〈그림 4-8〉 3장: 조명플랜1-1



〈그림 4-9〉 3장: 조명플랜1-2

상수 down stage에 있는 붓과 한지에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정명공주가 하수 down stage에서 상수 down stage 로 이동하면서 하수 down stage 스포트라이트가 out 된다. 상수 down stage에서 한지를 빼서 center로 가면서 상수 down stage 정명공주 중심의 조명이 들어오고 상수 down stage 한지 중심의 스포트라이트가 out된다. 그림자가 하수에서 천천히 나오면 푸른 계열의 사이드 조명이 out되면서 황색계열의 사이드 조명이 들어온다. 하수 up stage의 그림자의 실루엣이 보이도록 조도가 낮게 조명이 들어온다. 상·하수의 공간을 분리시켰다.



〈그림 4-10〉 3장: 조명플랜 1-3

그림자가 하수 up stage에 오면 황색 계열의 사이드조명이 out되면서 그림자에 게 실루엣만 보일정도로 조도가 낮게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온다. 상수 down stage 정명공주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오고 하수 up stage 조명이 천천히 out되고 상수 down stage 스포트라이트가 천천히 out된다.

V. 결론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는 정명공주의 삶 중에서 5년간 서궁 생활을 하던 그때의 감정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을 통해 정명공주의 마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자하였다.

무용작품 「화정(華政) - 죽은 듯이」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장은 ‘신분강등’으로 아버지인 선조의 죽음을 시작으로 작품이 시작된다. 그림자가 등장하면서 서로 경계를 하다가 그림자가 조금씩 정명공주를 압박을 하면서 용포와 저고리를 뺏어간다. 이를 통해 신분이 강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2장은 ‘죽은 사람처럼’으로 그림자에게 쫓기고 도망가는 정명공주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림자가 정명공주를 잡으면서 그림자 안에 갇혀 괴로워하는데 이는 정명공주가 서궁에서 나가고 싶지만 동생인 영창대군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괴로움을 표현하였다. 3장은 ‘체념과 승화’로 현실을 체념하고 붓을 발견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추억하고 서예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작품이 끝이 난다.

이처럼 정명공주는 서궁 윤패생활에서 빈곤하고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서체이자 자신의 서체를 쓰면서 어머니를 위로해주며 자신을 위로하였다. 이는 정명공주의 대표적인 서예작품인 ‘화정(華政)’에 대한 발문 한 남구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정명공주가 막내아들 홍만희에게 말한 말만 보아도 정명공주가 ‘화정(華政)’을 어떤 의미로 써는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정명공주가 자신의 삶속에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을 겪고 있을 현대인들에게 간접적이거나 정명공주의 ‘빛나는 다스림’을 통해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나 자신부터 다스려 시련과 갈등하는 현실에서 공생하는 지혜를 가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김지영 and 서보민.“ (2018). 역사드라마 '화정'과 역사적 상상력-17세기 정명공주의 삶을 재현하는 방식들-. 『여성과 역사』, 29, 91-130.
- 박정은. (2010). “〈계축일기〉의 소설적 특성”.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영. (2015). 『정명공주와 광해군의 정치기술 화정』. 서울: 리베르.
- 신병호. (2000). 『조선공주실록』. 경기도: 역사의 아침.
- 신병호. (2003). 『화정, 정명공주』. 서울: 생각정거장.
- 신병주. (2003). 『왕비로 산다는 것』.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조재현. (2003). 『계축일기』. 서울: 서해문집.

네이버 색채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곤룡포 [袞龍袍]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정명공주가 80세가 된 해에 막내아들인 흥만희에게 내린 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9498&cid=59015&categoryId=59015>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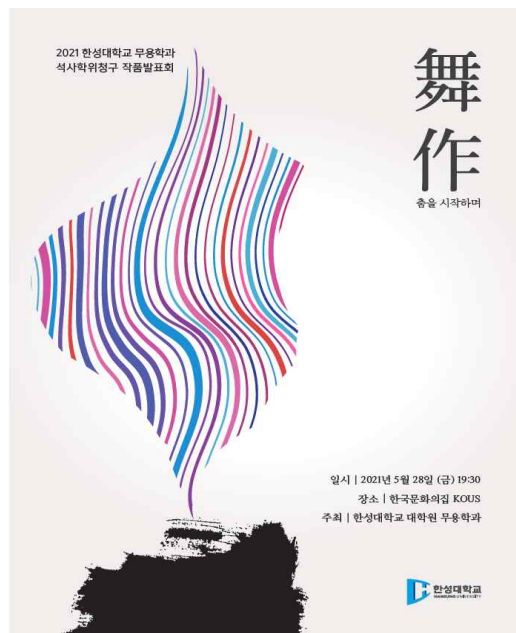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화정(華政)-죽은 듯이
일시	2021년 05월 28일 금요일 PM 7시 30분
장소	한국 문화의 집 KOUS
안무자	김아현
출연진	김아현, 김영인, 김혜인, 최예지
의상디자인	김아현
조명감독	이동현
음향감독	김주명

팜플렛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주소 :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전로 30길(삼전동2가) 196 낙산관 104호
전화 : 02-760-4387 | 팩스 : 02-760-4485 | 홈페이지 : www.hanyang.ac.kr



화정(華政) - 죽은 듯이

발표자: 김아현(한국무용) 지도교수: 김남용

작품내용

왕이 숭하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군가 다가온다.
그게 내 마음의 그림자인지
나를 위협하는 사람의 그림자인지
경계가 된다.
나를 몰아오고 있다.
무섭다.
도망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근대 죽음지도 몰라
한 자 쓰고
그림구나.
두 자 쓰고
인한건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작품의도

다스리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정명공주는 자신의 기고한 실학에서 아버지의 필체를 쓰며 마음을 다스리며 죽은 듯이 살았다. 정명공주의 살 중에 서궁에 유폐되었던 5년 동안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정명공주가 6살, 영창대군이 3살 때 아버지인 선조가 숭하하자 인목왕후(소성대비)와 광해군은 김정 소원해졌고 광해군 5년에 외조부인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총합하러 했다 하여 벌어진 계축옥사 후, 5년 뒤 어머니 인목왕후(소성대비)가 대비에서 서궁으로 강등당하고 덕수궁에 유폐되면서 정명공주도 함께 유폐되었다. "공주를 서인으로 궁에 두지 말고 시가로 내보내자." 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인목대비는 정명공주까지 빼앗길까 두려워 "정명공주는 이미 죽었다." 하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출 연 진

안무 및 출연



김아현(정명공주)

출연



김영인(그림자) 김혜인(그림자) 최예지(그림자)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HwaJung(華政)- As if Dead」

Kim, Ah Hyun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incess Jeongmyeong's meditative techniques revealed in the dance piece, 'Hwajeong - As if Dead,' which zooms in on the emotions that were felt during her stay at Seogoong Palace.

Based on the life of Princess Jeongmyeong, the dance piece 'Hwajeong' lists the major events of Princess Jeongmyeong's life and paints her state of emotions in each respective event. Furthermore, 'Hwajeong' reinterprets the m in a modern way. In this study, 'Hwajeong' will be analyz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with emphasis on elements such as form, structure, composition, expression, costume, props, lighting, and music.

The dance piece 'Hwajeong' depicts the major events of Princess Jeongmyeong's life, namely, the death of her father King Seonjo, high treason case in the year of Gyechuk that resulted in the loss of her royal status, and subsequent banishment to Seogoon Palace. At the same time, 'Hwajeong' explores the emotional changes that Princess Jeongmyeong experiences and expresses them using modern choreography. Following the death of her father King Seonjo, Princess Jeongmyeong starts to fear the shadows, and her royal status is demoted due to the threats posed by these shadows. Also, Princess J

Jeongmyeong is locked inside the shadows, and she wishes to escape this fear but her inability to escape heightens her emotions and she relinquishes in the end. This piece metaphorically depicts her way of coping with her harsh reality, which is through her practice of calligraphy that stems from her memories with her father.

This author places emphasis on how the Princess overcomes the hardships of her life in this study, and wishes to inspire modern citizens who constantly struggle with their own hardships in their lives through Princess Jeongmyeong's 'radiant teachings.' Furthermore, the author hopes to motivate readers to tame oneself first before taming others, which will help people to coexist in a reality where constant conflicts abound.

【Key words】 Princess Jeongmyeong(貞明公主), Hwajeong(華政), calligraphy, teachings, mind